

하와이대학교 한국 컬렉션 현황 연구

- '스페셜 코리안 컬렉션(Special Korean Collecton)'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tatus of Korean Collection at the University of Hawaii

- Focus on the Special Korean Collection -

윤 금 선(Keum-Sun Yeun)*

<목 차>

- | | |
|-------------------------------|----------------------------------|
| I. 머리말 | III. 맺음말을 대신하여 : 한국 컬렉션 체계화의 필요성 |
| II. 하와이대학교의 한국 컬렉션 | 1. 해외 고문헌 및 근대기 한국학 자료의 체계화 |
| 1. 초기 한인 이주 지역의 한국학 자료 | 2. 자료의 분석과 통사적 기술 |
| 2. 마샬 필(Marshall Pihl)의 회귀 도서 | |
| 3. 한국학센터의 한국 컬렉션 | |

초 록

이 연구에서는 하와이대학교 해밀턴 도서관의 '스페셜 코리안 컬렉션(Special Korean Collecton)'에 주목하여 한국학 자료들의 실제적인 구축 현황을 살피고자 했다. 이 컬렉션에는 마샬 필(Marshall Pihl)의 회귀 도서와, 대학 기관인 '한국학 센터(Center for Korean Studies)'가 수집한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대상으로 첫째, 한국학 자료들의 실제적인 구축 현황은 어떠한가? 둘째, 학문 분야와 자료의 성격, 그 가치는 무엇인가? 등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료적 가치를 해명하고, 한국학 자료 체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는 미주 지역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한국학 자료에까지 확산될 논의이기도 하다. 현재는 이주 초기 한국학 자료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부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연구사적으로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동포들의 학문 및 문학,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 걸친 자료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본고는 코리안 컬렉션의 체계화와 향후 방향성을 모색한 시론이라 할 수 있다.

키워드: 하와이대학교, 해밀턴도서관, 한국학센터, 스페셜 코리안 컬렉션, 마샬 필, 해외 한인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the 'Special Korean Collection' at the University of Hawaii's Hamilton Library, to examine the actual construction of Korean academic materials. The collection includes rare books by Marshall Pihl and Korean academic materials collected by 'the Korea Center'. And the following points were reviewed. First, what is the actual status of Korean academic data? Second, what is the field of study and what is the value of the material? Furthermore, this research sought to shed light on the Korean studies of early Korean emigrants. This includes not only the Americas but also Northeast Asia, Russia and Central Asia. There is a lack of comprehensive review of these materials at present. As a result, despite they are important research material, it is assumed that researchers have failed to grasp the academic, literary, cultural and artistic data of contemporary Korean emigrants. So the study also provided an understanding and future direction of the Korean collection.

Keywords: University of Hawaii, Hamilton Library, Center for Korean Studies, Special Korean Collecton, Marshall Pihl, Korean emigrants

* 동덕여자대학교 교양대학 부교수(east124@dongduk.ac.kr)

•논문접수: 2018년 11월 20일 •최초심사: 2018년 11월 27일 •게재확정: 2018년 12월 13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9(4), 329-351, 2018. [http://dx.doi.org/10.16981/kliss.49.201812.329]

I. 머리말

‘코리안 컬렉션(Korean Collecton)’은 주로 미주 지역 한인 자료에 대한 카테고리를 칭하는 용어로서 한국학 자료를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특히 하와이대학교 마노아캠퍼스(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의 ‘해밀턴 도서관(Hamilton Library)’에 소장된 ‘스페셜 코리안 컬렉션(Special Korean Collecton)’을 중심으로, 그 현황을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컬렉션에는 한국의 고문헌과 이주 초기 해외 한인 자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대개 이주 초기 디아스포라 연구를 시도하는 경우, 국내 소장 자료 외에 각국의 대학 도서관과 한국학 연구소 사이트에 링크된 정보자원, 국가도서관의 학술정보 제공 서비스, 고문헌 자료 등을 검색하며 탐색하곤 한다. 그러나 해외 소재 자료를 찾기 위해서는 개별 아이디 생성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자료 접근에 한계성을 보이기도 한다. 이에 검색만으로는 원하는 정보를 충분히 간파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혹은 해당 지역 한국학 연구소를 방문하여 관련 자료를 탐색하고 자료들을 수집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소장 정보를 숙지하지 못하여 자료 수집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며, 역으로 생각지 못했던 의외의 자료를 발견하는 성과를 얻기도 한다.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즉 해외 각지에 산재한 한국학 자료들을 소장한 기관은 어디이며, 어떤 자료들을 어느 정도로 소장하고 있는지를 총괄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부재하다. 그러므로 초기 한인들에 의해 축적된 한국학 자료 전반에 대한 일목요연한 자료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즉 해외 대학 기관 및 한국학 유관 기관의 자료들을 일목요연하게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정보원으로 구축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시론으로서, 먼저 하와이대학의 한국학 자료를 그 모본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한인에게 있어서 하와이는 서구로의 첫 이주지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지역이다. 하와이에 도착한 한인들은 국권 회복을 위해 ‘한인합성협회’(1907)라는 한인 단체를 결성하고, 이후 미주 본토로 이주가 확산되면서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각각 ‘공립협회’(1905)와 ‘대동교육회’(1905)를 조직하였다. 초기 이주 한인들은 이러한 단체를 통하여 항일 구국 투쟁 및 한인 교육운동을 전개했다.(차배근, 2002, 88-93) 1909년에 이르러서는 항일 애국 운동을 보다 조직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하와이의 ‘한인합성협회’와 샌프란시스코의 ‘공립협회’, 로스앤젤레스의 ‘대동보국회’를 통합하여 ‘대한인국민회(大韓人國民會)’를 창립했으며, 미주에 ‘북미지방총회’, 하와이에 ‘하와이지방총회’ 등 산하 단체를 두고 언론 사업을 펼치며 재미 한인 단체의 결속을 다지기도 했다.(김원용, 2004)

국민회가 조직화되면서 총회에서는 각처에 ‘학생양성소’, ‘국어학교’ 등의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동포 2세의 국어교육을 의무화시켰으며, 모국의 전통 문화와 역사를 가르치는 등 적극적인 교육정책을 실시하였다.(김창범, 2004) 언어는 한 민족의 정신적 지주가 되는 근간으로

서, 자국어를 잃지 않으려는 이주 한인들의 교육운동이 활발했던 것이다.(윤금선, 2004) 이와 같은 교육운동은 근대기 전반에 걸친 주요 사업에 속했다. 그 결과 한인들의 문식성이 향상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모국어 학문 및 문화·예술 활동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한국학 자료는 바로 이러한 한인들의 활동상을 보여주는 자료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며, 특히 하와이대학교의 ‘스페셜 코리안 컬렉션(Special Korean Collecton)’에 주목하여 한국학 자료들의 실제적인 구축 현황을 살피고자 한다. 이 컬렉션에는 마샬 필(Marshall Pihl)의 희귀 도서와 한국학센터가 수집한 한국학 자료 등, 이주 한인 1세대의 학문 및 문화 활동 자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대상으로 첫째, 한국학 자료들의 실제적인 구축 현황은 어떠한가? 둘째, 학문 분야와 자료의 성격, 그 가치는 무엇인가?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일종의 시범적인 논구로서 먼저 한인들의 첫 이주지인 하와이 지역 자료들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미주 여타 지역은 물론 초기 한인 이주지인 동북아시아, 러시아, 중앙아시아 지역의 고문헌 및 근대기 한국학 자료 현황을 정리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실제 검토 자료는 한국인이 주체가 되고 모국어를 사용한 경우를 일차적인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타국어로 기술된 경우에도 한국학 자료와 관련하여 유용한 자료이면 참고하고자 한다.

Ⅱ. 하와이대학교의 한국 컬렉션

1. 초기 한인 이주 지역의 한국학 자료

본고에서는 하와이대학의 한국 컬렉션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하와이가 서구로의 첫 이주지라는 점에서 주목되는 것처럼, 미주 본토 지역의 경우도 대개 초기 이주 지역 대학에 한국학 자료가 집중된 현상을 보인다. 일례로 캘리포니아 지역은 초창기 본토 한인 이주지로서 일찍이 동포들이 밀집한 지역이다, 또한 한인 지도자들에 의해 ‘클레몬트 학생양성소’와 ‘버클리 학생양성소’ 등 한인교육기관이 설립되었던 곳이기도 하다.¹⁾

그 결과 이 지역 대학교들에는²⁾ 한국학 자료가 다수 소장된 경우가 많은데, 특히 버클리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의 ‘아사미 도서관(Asami library)’에는 20세기 초

1) 학생양성소의 설립 취지는 구국 인재 양성에 있었다. 이러한 취지 하에 최초의 학생양성소가 클레몬트에 세워지게 되었다. <신개학생도모집광고>(《신한민보》, 1914.8.27)에서는 이 지역에 설립한 이유를 “교육과 도덕을 존중해야 대동소학교가 완전하고 듀야로 풍금과 찬미 소리가 끈혀지지 않는 곳”이기 때문이라 밝혔다. 이를 보면 클레몬트 학생양성소는 교육적인 입지 조건을 고려하여 설립한 것이라 할 수 있다.(윤금선, 2017, 65)

2) 미주 본토 대학교(University of Harvard/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9권 제4호)



<그림 1> UCLA 도서관 한국학 관련 도서(<http://www.international.ucla.edu>)

반의 한국학 자료와 버클리에서 구매한 4,000권 이상의 장서가 보존되어 있다. 이 컬렉션에는 다수의 원고와 일기, 회고록, 문학 작품, 17세기 초 고문헌 등 귀중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UCLA대학과 남가주대학(USC)에도 초기 한인 이민자들과 그 후손들이 기증한 한국학 자료들이 다수 소장되어 있다. 이 자료들 중 일부는 이미지 파일 및 음성 파일로 게시되어 직접 온라인상에서 확인할 수 있기도 하다.(강양원·클레어 유 편저. 2011, 93)

기타 시카고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컬럼비아대학(University of Columbia), 하버드대학(University of Harvard) 등 여타 대학의 경우도 역사, 교육, 문학, 정치, 과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한국학 자료들을 소장하고 있으며, 일부 대학교에는 일본의 한인사회, 중국 만주와 길림,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구소련 공화국이 발행한 한국어 자료를 비롯해 회귀 자료들이 다수 소장되어 있기도 하다.³⁾ 미주 대학의 이러한 자료들은 초기 한인 교민들의 한국학 현황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귀중한 사료들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본고에서는 하와이대학교의 한국학 컬렉션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 대학은 초기 한인 이주지로서 한국학 자료가 상당수 축적된 곳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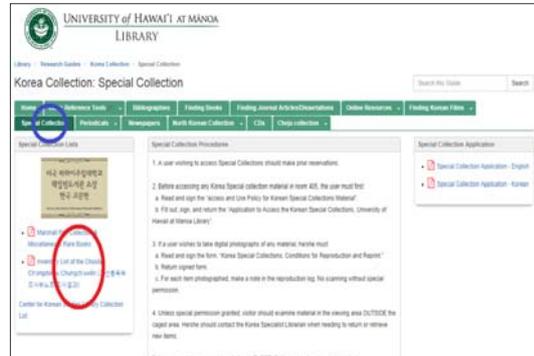
하와이대학의 한국학 자료들은 1938년 하와이의 한인 의사였던 양유찬 박사가 그의 아내를 추모하기 위해 『진찬의례』 등 회귀서 19종 33책을 기증함으로써 시작되었다. 한편 1939년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설립된 재미동포협회(Korean American Cultural Association)가 도서를 기증하기도 했는데, 이 협회에서는 ‘미국 대학에 한국학 장서를 세우자’는 목표 아래, 한국 서적의 기증 운동을 확산시키기도 했다. 1960년부터는 하와이대학이 직접 자료 수집에 나서 현재에는 7만여 권에 이르고 있다.(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편. 2014, 134)

한편 하와이대학교의 ‘해밀턴 도서관(Hamilton Library)’에서는 ‘코리아 컬렉션(Korea Collection)’이라는 사이트를 마련하고, 남한과 북한의 한국학 자료들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고문헌 및 근대기 자료뿐만 아니라 현대에 이르는 저서, 논문, 저널, 영화 등 다수의 자료 목록을 제시하고, 일부 자료는 링크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들을 확인하게끔 설정해 놓았다.

특히 <그림 2>에서 원으로 표시한 부분들은 ‘스페셜 코리아 컬렉션(Special Korean Collecton)’으로 분류된 회귀 자료 목록들이다. 이 자료들은 ‘1. 해밀턴도서관 한국 고문헌, 2.

3) 해밀턴 도서관의 코리아 컬렉션(<https://guides.library.manoa.hawaii.edu/kstudies>)

마샬 필의 수집 자료 및 희귀 도서(Marshall Pihl Collection & Miscellaneous Rare Books), 3. 조선 총독부의 충청권 목록(inventory List of the Chosŏn Ch'ongdokpu Chungch'uwŏn), 4. 한국학센터 도서관 수집 목록(Center for Korean Studies Library Collection List)'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 4가지 항목 중, 1번 해밀턴 도서관의 고문헌은 '국립중앙도서관(2014)'에서 이미 검토한 바 있으며,⁴⁾ 3번 '조선 총독부의 충청권 목록'은 충청권을 중심으로 한 조선총독부 조사 결과 노트로서 인구 수, 지리, 교육, 문화 시설 등과 관련된 자료이다. 이는 일본이 식민지 조선의 지역별 파악을 위한 조사 내용으로 10쪽 정도의 분량에 목록 수준의 자료이다. 본고에서는 한국인이 주체가 된 한국학 자료 현황을 살피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기에 이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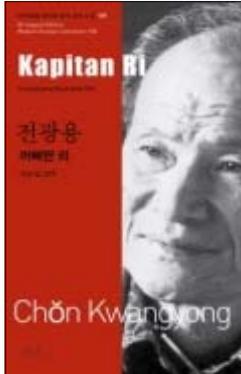
〈그림 2〉 해밀턴 도서관의 코리안 컬렉션(<https://guides.library.manoa.hawaii.edu/kstudies>)

결국 이 연구에서는 '스페셜 코리안 컬렉션(Special Korean Collecton)' 자료 중 기존에 다룬 바 있는 1번 고문헌과 3번 총독부 조사 자료 외에, 2번 마샬 필의 수집 자료 및 희귀 도서와, 4번 한국학센터의 수집 자료를 중심으로 그 현황을 살피고자 한다. 마샬 필의 자료들은 주로 고문헌과 근대기 희귀 도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학센터는 고문헌, 근대기 문헌, 사진류, 인터뷰 영상, 기타 멀티미디어 등 다양한 자료들을 소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아래에서는 마샬 필과 한국학센터의 수집 자료를 중심으로 그 구축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마샬 필(Marshall Pihl)의 희귀 도서

'마샬 필의 수집 자료 및 희귀 도서(Marshall Pihl Collection & Miscellaneous Rare Books)'는 주로 희귀 도서들을 보여주는 자료들이다. 하와이대학교에서 한국문학을 가르쳤던 마샬 필(Marshall R. Pihl, 1933-1995) 교수가 기증한 자료이다. 그는 1965년 서울대학교에서 한국어 및 문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1976년 하버드대학교에서 「판소리 심청가

4)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편(2014)에서는 한국 고문헌을 사부분류법에 의거하여 주제 분류를 했는데, 이에 따르면, 집부(集部)에 해당된 자료가 137종 780책으로 57.61%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지배적인 수치를 보인다. 이 중에서 별사류(別集類)인 문집(文集)이 113종 66책으로 48.97%에 이르러, 해밀턴도서관 장서는 대부분 문집류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경부(經部)는 44종 181책으로 13.37%를 차지하고, 사부(史部)는 78종 202책으로 14.92%를 차지했으며, 자부(子部)는 70종 191책으로 14.11%를 차지했다.(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편, 2014, 151-152)



〈그림 3〉 마살 필의
영역본 『Kapitan Ri』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또한 한국에서 ‘미국에서의 한국연구’(1970년 4월)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는 등 한국과의 네트워크를 이어가면서 한국 문학을 영역하여 서구에 소개하기도 했다.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1971년에는 한국일보사가 후원하는 제1회 현대 한국 문학 번역상을 수상했다.⁵⁾ 1988년에는 하와이대학 동양어학부 교수로 임용되어 1992년에 임기를 마쳤는데, ‘마살 필 컬렉션’은 이러한 연구 및 교육 과정 중에 수집한 자료들로 보인다. 아래에서는 우선적으로 희귀 도서들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가. 고문헌 자료

‘마살 필 컬렉션’에는 고문헌 및 일부 근대기 도서들이 포함되어 있다. 연구소에서는 서지명 가나다순으로 목록을 정리하고, 책표지와 함께 간단한 서지 사항을 제시했는데 PDF 파일로 32쪽에 이른다. 본고에서는 이 자료들을 고문헌과 근대기 이후의 자료로 분류하여 살폈으며, 부문별로는 연도순으로 재정리하였다. 본고에서 검토한 고문헌은 총 61종 139책으로, 동양의 전통 분류방식인 사부분류법(四部分類法)을 적용하여, ‘경부(經部), 사부(史部), 자부(子部), 집부(集部)’⁶⁾ 등 주제별로 정리했다. 이 중 최다수를 차지하는 경부(經部)의 서지 사항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경부(經部) 목록 및 서지 사항

번호	편저자	제목	출판사항	발행연도	문체	비고	소분야
1	설순(狹循)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불명	<1490>(성종 21)	국한문혼용	목판본/삽도/3권 1책	예류
2	<이황(李滉)>	논어석의(論語釋義)	불명	불명(명종 연간)	국한문혼용	목판본/1책	사서류
3	<주희(朱熹) 저>	소학언해(小學諺解) 3-6권	불명	<1518>(선조 19)	국한문병기	목판본/ 1권 1책 /2권 2책/4권 3책	소학류
4	최세진(崔世珍) 저	훈몽자회(訓蒙字會)	불명	<1527>(중종 22)	국한문혼용	목판본/3권 1책	소학류
5	<홍문관>	효경언해(孝經諺解)	불명	<1590>(선조 23)	국한문혼용	목판본/1책	효경류
6	소혜왕후(昭惠王后) 편찬	내훈(內訓)	불명	1658(효종 9)	국문도	목판본/3권 3책	예류
7	<韓濩 서>	천자문(千字文)	불명	<1694>(숙종 21)	한문	목판본/1책	소학류

5) 그가 번역한 문학 작품은 오영수의 『오영수 단편선』, 『갯마을』, 오영진의 『맹진사댁 경사』, 이범선의 『오발탄』, 조정래의 『유형의 땅』, 전광용의 『꺼비만 리』, 하근찬의 『Reading Korea: 12 contemporary stories』 외 오정희, 신경숙, 김승옥 단편 등을 들 수 있다. (“digital library of korean literature”, <http://library.klti.or.kr>)
 6) 1. 경부(經部): 사서오경(四書五經) 등의 경서(經書)와 육예(六藝), 소학(小學) 등으로 분류, 2. 사부(史部): 역사 기록 및 역사 관련류, 3. 자부(子部): 병서(兵書), 술수가(術數家) 등과 같은 제자백가(諸子百家)에 해당, 4. 집부(集部): 시부(詩賦), 도찬(圖讚) 등에 해당(한국학진흥사업 성과포털, “도서분류법”, <http://waks.aks.ac.kr/dir/searchView.aspx?qType>)

8	신덕수(愼德秀) 부주/이덕홍(李德弘) 석의/송시열(宋時烈) 등 교정	심경부주석의(心經附註釋疑)	<내각>(內閣)	불명(숙종연간)	한문	목판본/4권 1책	서류
9	<홍성원(洪聖源)>	주해천자문(註解千字文)	<개원사(開元寺)>	<1752>(명종 28)	국한문혼용	목판본/1책	소학류
10	<이병모(李秉模)>	오륜행실도(五倫行實圖) 1-5권	불명	<1787>(정조 12)	국한문혼용	목판본/삽도/1책 /5권 5책	예류
11	미상	전운옥편(全韻玉篇)	불명	<1796>(정조 21)	한문	목판본/2책	소학류
12	<박세무(朴世茂)>	주역언해(周易諺解) 1-9권	<내각>	<1820>(순조 20)	국한문병기	목판본/1권 1책 /9권 5책	서류
13	<주희(朱熹) 저>	서전언해(書傳諺解) 1-5권	<내각>	<1820>(순조 20)	국한문혼용	목판본/5권 5책 /2권 2책	서류
14		대학언해(大學諺解)	<내각>	1820(순조 20)	국한문혼용	목판본/1책	사서류
15	<호광(胡廣)>	논어집주대전(論語集註大全) 1-20권	<내각>	<1820>(순조 20)	한문	목판본 20권 7책	사서류
16		중용장구대전(中庸章句大全)	<내각>	1820(순조 20)	한문	목판본/2책	사서류
17		맹자집주대전(孟子集註大全)	<내각>	<1820>(순조 20)	한문	목판본/14권 7책	사서류
18		서전대전(書傳大全)	<내각>	<1820>(순조 20)	한문	목판본/11권 10책	서류
19		시전대전(詩傳大全)	<내각>	<1820>(순조 20)	한문	목판본/20권 7책	서류
20	<정조(正祖) 찬(撰)>	대학장구대전(大學章句大全)	불명	<1821>(순조 21)	한문	목판본/2책	사서류
21	<남이성(南二星) 편>	동몽선습(童蒙先習)	불명	<1834>(헌종 1)	국문토	석판본/1책	소학류
22	<이황(李滉)>	사서언석해(四書諺釋解)	불명	1909	국한문혼용	신연활자본/1책	사서류
24	미상	유합(類合)	불명	불명	국한문혼용	목판본/1책	소학류

출처: "스페셜 코리언 컬렉션(Special Korean Collecton)" (<https://ckslib.manoa.hawaii.edu/archives-and-manuscripts-collections/marshall-r-pihl-papers>)
 이하 동일 출처 제시에서는 URL 주소를 생략하고자 한다.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마살 필의 고문헌 중 '경부(經部)'는 총 24종 84책으로, 소학류(8), 사서류(7), 서류(4), 예류(3), 시류(1), 효경류(1) 등으로 나타나 소학류와 사서류가 지배적이다. 또한 판종별로 보면, 석판본 1종과 신연활자본 1종⁷⁾ 외에 모두 목판본(木版本)에 해당된다. 문체면에서는 국한문혼용(11), 한문(9), 국문토(2), 국한문병기(2) 등으로 국문과 혼용하여 기술한 경우는 15건, 한문체는 9건으로 드러났다. 기타 주목되는 사항으로는 순조 연간에 발행된 서적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나며, 주로 성균관 내각(內閣)에서 발행한 서적들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한편 일개인의 저서 면에서 보면 호광(胡廣)의 저서가 여러 권 된다는 점이 주목된다.

7) 이황의 『사서언석해(四書諺釋解)』로서 1909년 신활자본이다. 조선시대 서적을 근대기에 재출판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동몽선습(童蒙先習)』,
("마살필 컬렉션", 105)

그런데 <표 1>에서 편저자부터 발행 연도까지 괄호(< >)로 표시한 항목은 실제 마살 필 목록에서 모두 '불명'으로 표시된 부분이다. 본고에서 검토 과정 중 새롭게 표기한 경우로서, 경부 외에 사부(史部), 자부(子部), 집부(集部) 등의 자료에서도 실제 파악할 수 있는 서지 사항을 '불명'으로 제시한 경우가 다수이다. 이에 서지 사항의 재정비가 필요한 사항이기도 하다. 여타 부문들도 <표 1>과 같은 방식으로 정리했으나, 지면의 한계상 <표 2>로 총괄적인 현황을 대신하였다.

앞서 살핀 경부 외에 여타 부문의 서지별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부(史部)'는 9종 21책으로 정서류(3), 별사류(3), 사평류(2), 정서류(1) 등의 빈도를 보이며, 관종별로는 목판본(6), 금속활자본(2), 석판본(1) 등으로 역시 목판본이 최다이다.

〈표 2〉 부문별 서지 사항 총괄

번호	부문	소분류	관종	문체	기타
1	경부(經部) (24종 84책)	소학류(8), 사서류(7), 서류(4), 시류(1), 예류(3), 효경류(1)	목판본(22), 석판본(1), 신연활자본(1)	국한문혼용(11), 국문토(2), 국한문병기(2), 한문(9)	순조 연간 발행(7)/호광(胡廣) 저(5)/성균관의 내각(內閣) 발행(9)
2	사부(史部) (9종 21책)	정서류(3), 별사류(3), 사평류(2), 정서류(1)	목판본(6), 금속활자본(2), 석판본(1)	국문(2), 국한문혼용(2), 국역병기(1), 한문(4)	정조대(4)
3	자부(子部) (21종 27책)	석가류(11), 예술류(2), 도가류(2), 유서류(1), 병가류(1), 농가류(1), 의가류(1), 잡편류(1)	목판본(12), 영인본(6), 금속활자본(1), 연사간판본(1), 필사본(1), 신연활자본(1)	국한문혼용(7), 국한문병기(3), 국문(2), 국문토(1), 한문(8)	불교 경전 다수(11) 일제강점기 영인본(6)/세종~고종대까지 고루 분포
4	집부(集部) (7종 7책)	시문(4), 소설류(2), 기타(1)	목판본(4), 필사본(2), 석판본(1)	국문(3), 국한문혼용(2), 국역병제(1), 한문(1)	두시연해 이본(3종)

출처: 스페셜 코리언 컬렉션(Special Korean Collecton)

문체 면에서는 한문(4), 국문(2), 국한문혼용(2), 국역병기(1) 등으로 나타나며, 상대적으로 정조 연간 출판본(4)의 빈도수가 높은 편이다. 자부(子部)는 총 21종 27책으로 석가류(11), 예술류(2), 도가류(2), 유서류(1), 병가류(1), 농가류(1), 의가류(1), 잡편류(1) 등의 빈도를 보이는데, 불교 경전인 석가류가 지배적인 수치를 보인다. 관종별로는 목판본(12), 영인본(6), 금속활자본(1), 연사간판본(1), 필사본(1) 등 다양하며, 특히 근대기에 재간한 영인본이 보인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문체면에서는 한문(8), 국한문혼용(7), 국한문병기(3), 국문(2), 국문토(1) 등으로 나타나며 출판 시기는 세종~고종대까지 고루 분포를 보인다. '집부(集部)'는 총 7종 7책으로 마살 필 고문서 중 최소를 보이는 부문이다. 시문(4), 소설류(2),

기타(1)로 특히 ‘두시언해류’가 3종을 차지하며, 판종별로는 목판본(4), 필사본(2), 석판본(1), 문체면에서는 국문(3), 국한문혼용(2), 국역병재(1), 한문(1) 등으로 나타난다.

이상 마살 필의 고문헌 61종 139책을 사부분류법(四部分類法)을 적용하여 그 경향성을 살폈다. 이를 총괄적으로 요약하면, 부문별로는 경부(24종), 자부(21종), 사부(9종), 집부(7종) 등의 빈도수로 경부가 최다수로 나타난다. 판종별로는 목판본(44종), 금속활자본(3종)·석판본(3종)·필사본(3종), 신연활자본(1)·연시간판본(1종)과 기타 영인본(6종) 등의 빈도로, 목판본이 최다를 차지한다. 고문헌은 인쇄사적 측면에서 의미를 지니는데, 목판본으로부터 신연활자본까지 판종의 발달사를 보여준다는 점이 주목된다. 문체면에서는 한문체(24종), 국한문혼용체(22종), 국문체(5종)·국한문병기(5종), 국문도(3종), 국역병기(2종) 순으로 한문체 및 국한문혼용체가 지배적인 경향을 보인다. 한편 특기할만한 사항으로는 1803년 발간한 『구운몽』, 『심청전』, 『임장군전』, 『열녀춘향수절가』 등의 고소설류와 『두시언해(杜詩諺解)』, 『명의록언해(明義錄諺解)』, 『사서언석해(四書諺錫解)』 등의 언해류가 소장되어(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편, 2014, 149) 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나. 근대기 이후의 자료

마살 필 컬렉션에서 근대기 이후의 자료는 총 17종 34책으로 연도순으로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마살 필의 근대기 이후 희귀 도서

번호	편저자	제목	출판사항	발행연도	문체	비고	분야
1	국민교육회(國民教育會) 편	초등지리교과서(初等地理教科書)	불명	<1907>	국한문혼용	신연활자본/1책	지리(교과서)
2	휘문의숙편집부(徽文義塾編輯部) 편	고등소학독본(高等小學讀本) 2권	한성: 휘문의숙인쇄부	1907	국한문혼용	신연활자본/1책	교육(교과서)
3	신채호(申翁告) 편	을지문덕(乙支文德)	황성: 대한황성광학서포	1908	국한문혼용	신연활자본/1책	문학(전기소설)
4	현채(玄采) 편	중등교과 동국사략(中等教科 東國史略) 3-4권	경성: 중앙서관	1908	국한문혼용	신연활자본/2권 1책	역사(교과서)
5	지석영(池錫永) 저	언문(言文)	대한황성: 광학서포	<1909>	국한문혼용	신연활자본/1책	교육(교과서)
6	Gale 저	유몽천자(孺蒙千字)	경성: 학서포	1909	국한문혼용	신연활자본/1905(3권), 1907(1권 속편), 1908(2권)/4책을 합) 4권 4책	교육(교과서)
7	Hulbert 저	사민필지(士民必知)	불명	1909	국문	신연활자본/1책	지리(세계지리)
8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편	보통학교 조선어급한문독본(普通學校朝鮮語及漢文讀本) 4권	경성: 조선총독부	1918	국한문혼용	신연활자본/2책	교육(교과서)

10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9권 제4호)

9	강매(姜邁), 김진호(金鎭浩) 공편	잘 뽑은 조선말과 글의 본	경성: 한성도서	1925	국한문혼용	신연활자본/3책	교육 (국어문법)
10	조선총독부 (朝鮮總督府) 편	신편고등 조선어급 한문독본(新編高等 朝鮮語及 漢文讀本) 5권	경성: 조선총독부	1926	국한문혼용	신연활자본/4책	교육 (교과서)
11	조선총독부 (朝鮮總督府) 편	중등교육 조선어급 한문독본(中等教育 朝鮮語及 漢文讀本) 2권	경성: 조선총독부	1933	국한문혼용	신연활자본/3책	교육 (교과서)
12	유희(柳僖) 저	교간유씨언문지(校 刊柳氏諺文志)	북평: 래훈각	1934	국한문혼용	신연활자본/1책	어학 (음운서)
13	<경상남도 저 작집발행>	읍면진흥독본(邑面 振興讀本)	부산: 상전인쇄소	1936	국일문혼용	신연활자본/1책	교육 (교과서)
14	문교부 편	국어(國語)	서울: 문교부	1957-1 958	국문	신연활자본/6책	교육 (교과서)
15	김근수(金根洙) 편	군도목:향가자료집성 (群都目:鄉歌資料集成)	불명	1961	한문	등사본(철필본)/ 1책	어학(향가)
16	이응백(李應百) 저	한국어학본 (韓國語學本)	대관:제일본대한 민국거류민 단대관부본부	1965	국문	사진판본/1책	교육 (교과서)
17	미상	일선화영신자전 (日鮮華英新字典)	불명	불명	한문	신연활자본/2책	교육(자전)

출처: 스페셜 코리언 컬렉션(Special Korean Collecton)

<표 3>의 자료를 주제별로 분류하면, 교육(12), 어학(2), 지리(1)·역사(1)·문학(1) 등으로 나타나며, 국민교육회, 조선교육회, 휘문의숙 등의 교육 단체와 지식영, 신채호, 현채 등이 펴낸 교과서류가 지배적인 수치를 보인다. 판종별로는 김근수의 『군도목:향가자료집』(등사본)과 이응백의 『한국어학본(韓國語學本)』(사진판본) 외에 모두 신연활자본(新鉛活字本)(15종)이며, 문체면에서는 국한문혼용체(11종), 국문체(3종, 한문체(2종), 일국문혼용체(1종) 등으로 나타나, 국한문혼용체가 최다수를 차지한다. 시기별로는 1900년대 초부터 1960년대까지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특히 <표 3>에서 주목되는 자료를 들면, 먼저 게일(Gale)의 『유몽천자』(6번)와 헐버트(Hulbert)의 『사민필지(士民必知)』(7번)는 선교사들이 편찬한 교육 서적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읍면진흥독본』(4번) 또한 일종의 교과서로서 1936년에 발간된 서적이다. 이 자료는 한국학센터에만 보존되어 있는 희귀 자료에 속한다. 이 외 『국어』 교과서 6권(14번)과 『한국어학본』(16번)은 문교부에서 펴낸 교재들이다. 비록 초기 자료는 아니지만 교육사적인 측면에서 참고할만한 자료들이다. 특히 후자는 1965년 일본 오사카 거류민단들의 모국어 교육용 교재로서, 희귀본이라는 점에서 귀중한 사료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마살 필의 희귀 도서들은 1인 기증 자료로는 최다수에 속하기도 한다. 각각의 학문 분야에서 탐구할만한 서적들이라는 점에서 사료적인 가치가 높다. 그런데 <표 3>에서도 고문헌의 경우처럼, <>로 표시한 부분이 있는데, 이 또한 실제 목록에서는 발행 시기를 불명으로 표시해 놓은 상태이다. 이것은 외국인 수집 목록인데다 현지에서 관리하는 소장

본이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자료에 대한 이해나 정보가 부족한 채로 목록이 공개되고 있는데, 이러한 자료들 또한 향후 서지 사항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3. 한국학센터의 한국 컬렉션

하와이대학교의 ‘한국학센터(Center for Korean Studies)’는 1972년에 설립되었고, 미주 지역에서는 최초로 세워진 한국학연구소이기도 하다. 설립 이래 한국학 자료를 구축하고 인류학, 건축, 미술, 아시아학, 커뮤니케이션, 경제, 음악, 교육, 지리, 역사, 언어 등 다양한 분야의 교수진을 통해 한국학에 대한 학제 간 및 문화 간 교류를 기하고 있다.⁸⁾ 이 연구소는 한국학과 관련된 39개의 컬렉션을 소장하고 있는데, 특히 근대기 자료들을 다수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아래 <표 4>는 한국학센터에 소장된 컬렉션을 알파벳순으로 재정렬하고 임의로 번호를 매겨 정리한 것이다.

<표 4> 한국학센터 도서관의 수집 목록(Center for Korean Studies Library Collection List)

번호	컬렉션명	번호	컬렉션명
1	Ada E. Leeke Collection	21	Korean Textbook Collection
2	Agnes L. Adams Collection	22	Marshall R. Pihl Papers
3	Agnes Rho Chun Collection	23	Mary T. Kim Collection
4	Akahane Collection	24	McCune-Becker Collection
5	Alice Yun Chai Collection	25	Nam Young Chung Collection
6	Arthur L. Gardner Collection	26	Nodie K. Sohn Collection
7	Audio Recordings Collection	27	Records of the Korean American Foundation Hawaii
8	David Hyun Collection	28	Richard F. Underwood Collection
9	Donald C.W. Kim Collection	29	Robert A. Kinney Collection
10	Duk Hee Lee Murabayashi Collection	30	Roberta W.S. Chang Collection
11	Esther Park Papers	31	Stephanie Castillo Collection
12	Florence Ahn Collection	32	Stephanie Han Collection
13	Halla Huhm Dance Collection	33	Sun-il Lee Collection
14	Hugh H.W. Kang Papers	34	Susan Chun Lee Collection
15	James P. Jennings Collection	35	Theodore R. Conant Collection
16	Judy Van Zile Korean Dance Collection	36	Timothy I. Wee Collection
17	Julius Vetter Collection	37	Tongjihoe Collection
18	Korean Christian Church(Honolulu) Collection	38	Wilbert H.S. Choi Papers
19	Korean Picture Brides Collection	39	William E. Henthorn Collection
20	Korean War Photograph Collection		

출처: “한국학센터 컬렉션(Center for Korean Studies Collections)” (<https://ckslib.manoa.hawaii.edu/archives-manuscripts>) 이하 동일 출처 제시에서는 URL 주소를 생략하고자 한다.

위의 컬렉션은 대부분 이주 한인 후손들이 기증한 자료로서, 내용면에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① 근대기 경성 풍경 및 사진 신부, 예술 관련 사진류(1, 2, 3, 4, 9, 13,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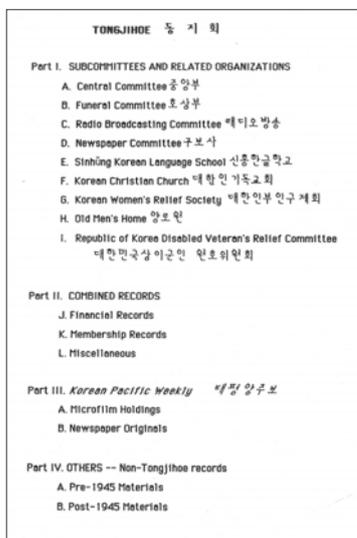
8) “센터 소개>About Center” (<http://koreanchristianity.cdh.ucla.edu/sources/diaries>)

20, 26, 32, 22 일부) ② 근대기 문서류(6. 17, 18, 31, 36, 37) ③ 근대기 가요 및 창가, 공연 관련 오디오류(7, 12, 14, 16, 20, 35) ④ 인터뷰 영상 및 녹음자료(8, 19, 25, 30) ⑤ 교육자료 및 문헌류(21, 28, 33) ⑥ 근대기 관련 논문(5, 11, 22, 24, 27, 29, 34, 38, 39) ⑦ 정리 중 자료(10) 등으로 분류된다. 한국학센터 대부분의 자료는 목록 수준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일부 사진류와 문서류는 링크를 통해 PDF 파일로 원본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표 5> 한국학센터 도서관 한국학 자료의 내용별 분류

번호	컬렉션 내용	컬렉션 번호
1	근대기 경성 풍경 및 사진 신부, 예술 관련 사진류	1, 2, 3, 4, 9, 13, 15, 20, 26, 32, 22 일부
2	근대기 문서류	6. 17, 18, 31, 36, 37
3	근대기 가요 및 창가, 공연 관련 오디오류	7, 12, 14, 16, 20, 35
4	인터뷰 영상 및 녹음자료	8, 19, 25, 30
5	교육자료 및 문헌류	21, 28, 33
6	근대기 관련 논문	5, 11, 22, 24, 27, 29, 34, 38, 39
7	기타 정리 중 자료	10

아래에서는 이 중 사료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자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5> 동지회컬렉션 (Tongjihoe Collection)

주는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가. 동지회 컬렉션(Tongjihoe Collection)

‘동지회컬렉션(Tongjihoe Collection)’(<표 4>의 37번)은 동지회와 관련된 문서류로 근대기 자료에 해당된다. 동지회는 1921년 하와이에 설립된 조직으로, 당시 하와이 각처에 9개의 지회를 두고 있었다. 동지회는 임시 정부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사업이었으며, 특히 이승만의 정치 활동을 지지했다. 이 단체는 순국문지인 《태평양주보》를 발간하고 ‘신흥국어학교’, 한인 교회, 한인여성구호협회 등을 지원하는 등의 활약상을 보이기도 했다.(윤금선, 2017, 74)

동지회 컬렉션은 이러한 사업과 관련된 재무 기록, 회보, 계시판, 기사, 서신, 사진, 청구서, 영수증, 보고서, 회의록, 문서 및 회원 등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으며, 기타 당대 출간된 한인 저서 및 잡지 목록, 여행 가이드, 지도, 신문물 소개, 뉴스 계시판 등을 수록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일제 강점기 하와이 한인사회의 정치 및 교육, 문화상 등을 보여

나. 한국어 교재 컬렉션(Korean Textbook Collection)

‘한국어 교재 컬렉션(Korean Textbook Collection)’(<표 4>의 21번)은 1911년에서 1927년 사이에 출판된 근대기 국어 교과서에 해당된다. 총 5종으로 당대 국어교육의 내용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사적인 가치가 높은 자료라 할 수 있다. 아래 <표 6>은 한국학센터에서 정리한 세부 목록을 제시한 것이다.

<표 6> Korean Textbook Collection(RG 35) : Korean Language Textbooks, 1911~1927

번호	제목	출판 정보	연도	비고
1	삼천리강산 (Samch'olli kangsan)	신한서관 Sinhan syogwan// 신한국보사인쇄 Sinhan'gukposya inswae	1911	
2	도선말 독본 첫 책 (Tyosyonmal tokpon ch'ot ch'aek vol.1)	대도선 독립단 총단장 발행(Tae tyosyon tongniptan ch'ongdanjang palhaeng// 미국 하 와이독립단 총부(Miguk hawaii tongniptan ch'ongbu), 중국 북경 독립단지부 (Chyungguk pukkyong tongniptan chibu)	1927	2 copies Korean Language Textbook The Korean Primer:Book II by Educational Board of the Korean Independence League.Industrial Press.
3	도선말 교과서 둘째 책 (Tyosyonmal kyokwasyo tuljae ch'aek vol.2)	대도선 독립단 총단장 발행(Tae tyosyon tongniptan ch'ongdanjang palhaeng// 미국 하 와이독립단 총부(Miguk hawaii tongniptan ch'ongbu), 중국 북경 독립단지부 (Chyungguk pukkyong tongniptan chibu)	1927	
4	初等小學卷一 (Ch'odungsohak kwonil vol.1)	金丙植(KimPyong-sik);催聖汝(Ch'oe song-yo) //Kwarg Nai Hong, Haleiwa (Oahu)	미상	3 copies
5	初等國民讀習 (Ch'odung kungmin toksup vol.1~3)	대한인국민회 Taehanin kungminhoe(The Korean National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1921	Korean language textbook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1~3

출처: 한국학센터 컬렉션(Center for Korean Studies Collections)



<그림 6> (1) 『도선말 독본 첫 책』 (2) 『도선말 교과서 둘째책』 (3) 『初等國民讀本』 2권
(4) 『初等小學卷一』 (5) 『三千里江山』

위 교과서 중 특징적인 자료를 살펴보면, 먼저 『도선말 독본 첫 책』과 『도선말 교과서 둘째

책』은 ‘대조선독립단(大朝鮮獨立團)’에서 발행한 교과서로, 당시 하와이 지역 총단장이었던 박용만(朴容萬)이 집필한 국어 교과서이다. 그런데 판권지를 보면 발행처가 “미국 하와이 독립단 총부, 중국 북경 독립단 지부”로 드러나 있어, 양 지역 독립단이 연합하여 출판한 교과서임을 알 수 있다. 이 교재는 미주와 중국 지역 한인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교과서라는 특징을 지니며(윤금선, 2015, 167) 미주 및 중국 독립단에서 공동으로 편찬한 교재라는 점에서 당대 해외 한인 간의 교류 현황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한편 『초등국민독습』 1~3권(1921)은 ‘북미지방총회’가 발간한 국어 교과서에 속한다. 이 교재는 하와이와 미주 본토에 위치한 ‘국어학교’에서 사용된 교재이기도 하다.(윤금선, 2017, 177) 기타 ‘대한인국민회’의 『초등국어(初等國語)』 1~2권(1911), 『국민국어과정(國民國語科程)』 상~하권(1917), ‘하와이대한인교민단부단’의 『초등소학(初等小學)』(1924), ‘신한서관’의 『삼천리강산』(1911) 등을 볼 수 있는데, <표 6>의 5종 교과서는 일제강점기 미주 한인사회에서 발행된 교과서라는 점에서 교육사적인 가치가 높은 자료라 할 수 있다.

다. 선일 리 컬렉션(Sun-il Lee Collection)

이선일 수집본(<표 4>의 33번)은 한국학센터 컬렉션 중에서 최다수를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자료 목록 서두에는 “The Sun-il Lee Collection was donated to the Center for Korean Studies by descendants of Lee’s family, Richard Ha Young and Marcella Lee and Annie Wha Soon Lee Tom.”이라 밝혀져 있는데, 이선일의 가족, 리차드 하영, 마르셀라 리, 애니 화순 리 탐 등의 후손들이 한국학센터에 기증한 자료임을 알 수 있다.

아래 <표 7>은 체계 없이 나열된 소장 목록을 ‘① 교재 및 사전류 ② 문학류 ③ 전기류 ④ 지리 및 역사류 ⑤ 규정 및 선언서류 ⑥ 고서류 ⑦ 종교류 ⑧ 중국서류 ⑨ 기타류’ 등 주제별로 분류하여 재정리한 것이다.

<표 7> 선일 리 컬렉션(Sun-il Lee Collection)

번호	부문	소장본
1	교재 사전류	『산술신편』 1권(1902, Campo, Eva H. 대한성교서회), 『大韓地誌』 2권(1905, 博文社), 『孺蒙千字』(1905, Gale, Jas. S.), 『英朝字典』(1927, 현공업, YMCA Dipartimento di stampa), 『東西洋歷史』 1~2권(1907, 현재, 보성관), 『初等地理教科書』(1907, 국민교육회), 『初等小學』(1907, 국민교육회, 2종 4권), 『最新初等小學』 3권(1908, 玉虎書林), 『大韓新地誌』 2권(1907, 장지연), 『大韓地誌教科書』(1908, 大東書館), 『最新初等大韓地誌』(1909), 『萬國事物紀原歷史』(1909, 장지연, 皇城新聞社), 『初等大韓地誌』(1908, 廣學書舖), 『新纂初等小學』 1~6(1909, 玄采家), 『萬國史』(1909, 김상연, 廣韓書林), 『最新式附音尺牘』(1914, 大昌書館), 『新式諺文家庭簡牘』(1924, 노익향, 博文書館), 『漢鮮文新玉篇』(1921, 大昌書館) 『세계소학독본』 2권(1929, 文化書館), 『三千里江山』(1935, 新韓書館), 『中等萬國史』(미상)
2	문학류	『銀世界』 1권(1908, 이인직, 同文社), 『春夢』(1924, 博文書館), 『青春의 夢』(1925, 박춘경, 博文書館), 『장끼진』(1926, 博文書館), 『무정한 청춘』(1926, 永昌書館), 『再生』 1~2권(1926, 이광수, 淮東書館), 『薄倖한 처녀』, (1926, 또르게-네후 著, 趙春光 譯, 博文書館), 『혁명가의 안해』(1930, 이광수, 三千里社), 『한음과 오성 실기』(1932, 新舊書林), 『단중애사』(1935, 이광수, 博文書館), 『사막의 꽃』(1935, 大成書林), 『금강산실기』(박건회), 『快男兒』(永昌書館), 『紅白花』(미상)

3	전기류	『東國名將傳』(1907, 洪良浩, 玄公廉), 『東明王實記』, 1-2권(1921, 장도빈, 漢城圖書), 『李舜臣傳』(1925, 장도빈, 高麗館), 『乙支文德實記』, (1929, 노익향, 博文書館), 『洪景來實記』(1929, 노익향, 博文書館), 『仁祖大王實記』(1930, 博文書館), 『大東衛人安重根傳』(미상)
4	지리 역사류	『羅馬史』(1907, 玄采 譯, 일한도서인쇄주식회사), 『대한제국지도』(1908), 『경성시가전도』(1916), 『韓國通史』(1917, 박은식, 국민보사), 『韓國獨立運動之血史』(1920, 박은식, 維新社), 『조선의 현재와 장래』(1923, 이광수, 興文堂)
5	규정집 선언서류	『韓人慈善會章程及細則』(1905, 韓人慈善會), 『地方自治制論』(1908, 張志必, 唯一書館), 『韓國大審院』(1908), 『新法律』(1910, 日韓印刷株式會社), 『청년회장정』(1910, 한인교보사), 『선포문』(1919, 留扈臨時國民大會), 『선언서』(1921, 국민공회), 『선포문, 헌법, 기관 조직』(1923, 국민대표회의), 『단발령』(미상), 『홍사단약법』(미상)
6	고서류	『以弗所書講義』(1887), 『增修無冤錄大全』(1906, 廣學書舖), 『全韻玉篇』(1910, 재간), 『集註孟子』(1911, 唯一書館, 재간), 『보심록』(1924, 朝鮮圖書株式會社 재간), 『延安李氏族譜』 1-2권(1926 재간), 『近思錄』 1권(이인민), 『東記』(미상), 『正文章軌範譯林註解』(미상)
7	종교류	『찬송가』 3종(1927/1931/1933, 조선예수교서회), 『新約全書』 3종(1909/1912/1913, 미국성서공회)
8	중국 서류	『初學階梯』 2권(1888, 福州:美華書局), 『初學階梯』 4권(1902, 釣牧對, 上海:美華書局), 『新論理學』(1914, 上海; Shangwuyinshuguan), 『罪惡釋言』(上海:美華書館)
9	기타류	『養鵝新論』(1908, 井上正賀(日本) 著/鮮于觀 譯, 廣學書舖), 『天中佳節』(1913, 唯一書館), 『계림춘추』 1-2권(1918, 한인교보사), 『新式料理製法』(1924, 永昌書館), 『京城百勝』(1929, 동아일보사출판부) 『三民主義』(1933, 손충산, 革新社) 『燈臺社』(1935, 도쿄), 『巨孟』(미상), 『歷代』(미상), 『秋風感別曲』(미상)

출처: 한국학센터 컬렉션(Center for Korean Studies Collections)

이선일 컬렉션에서도 일부 출판 사항이 빠져 있는 경우가 다수 발견된다. 본고에서는 정리 과정 중에 밝힐 수 있는 서지 사항들을 첨가하기도 했다. 자료 현황을 보면 시기적으로는 1900년대 이후 발간된 자료들이 대부분이며, 분야별로 보면 여기에서도 교과서류가 다수를 차지한다. 문학류는 소수이기는 하나 고소설, 신소설, 근대소설, 번역서 등 다양한 종으로 나타나며, 전기류나 지리 및 역사류에는 현재, 박은식, 이광수의 저서들이 소장되어 있다. 특히 『대한제국지도』(1908)와 『경성시가전도』(1916)는 당대 조선의 지리 현황을 보여주는 자료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위의 문헌 대부분은 국내에서 발간된 서적들이다. 국내서가 하와이 한인사회로 어떻게 유입되었는지, 그 주체와 경로의 문제는 따로 논구할 소지가 있다고 본다. 한편 현지에서 발간된 자료들은 규정집 및 선언서류들로서 당시 미주 한인사회의 정치적인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자료들이다. 이 외 ‘(9) 기타류’에서도 『계림춘추』가 주목되는데, 이 책은 하와이 지역에서 발간된 한인 잡지로 이선일 컬렉션에만 나타난 희귀본에 해당된다.

라. 사진류 및 오디오류 컬렉션

한국학센터 컬렉션에는 문헌류 외에도 근대기 및 전세기 등의 사진류나 음반, 인터뷰 자료 등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사진류는 동시기 한국 상황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일부 사진은 ‘한국학센터 디지털 아카이브(Center for Korean Studies Digital Archive)’로 링크하여 접근이 가능케 설정해 놓았다.

<표 8> 사진류 컬렉션 정리

번호	컬렉션	유형	특징	예시 사진 정보
1	Agnes Rho Chun Collection	흑백사진 11장	일제 강점기	① 1932년. '한국기독교교회 국어학교' ② 연도 미상. 이승만과 프란체스카 결혼 직후 촬영 사진
2	Nam Young Chung Collection	컬러사진 116장	해방기	③ 1945년. 국내 결혼식 장면 ④ 1945년. 마포시장 풍경 ⑤ 1948년. 차를 탄 맥아더 장군의 시가 행렬 광경
3	Ada E. Leeke Collection	흑백사진 118장		⑥ 연도 미상. 전차를 타려는 사람들과 도심 풍경 ⑦ 연도 미상. 강가에서 빨래하는 여성들
4	Korean War Photograph Collection	흑백사진 141장	전쟁기	1951-1953. ⑧ 남으로 피난하는 가족들 ⑨ 부산에 위치한 '해피마운틴 고아원'에 도착한 남매
5	Marshall R. Pihl Papers	흑백사진 33장	전쟁 직후	1958년. ⑩ 거울 가게 풍경, ⑪ 작은 거리 상점 앞에서 책을 보고 있는 학생들, ⑫ 명동의 포장 친 가게들

출처: 한국학센터 디지털 아카이브(Center for Korean Studies Collections Digital Archive)



<그림 7> ① Korean Christian Church, schools(1932), ② Syngman Rhee and Francesca Rhee(미상), ③ Wedding ceremony(1945), ④ Mapo, Seoul(1945), ⑤ General McArthur(1948), ⑥ Trolley Scene(1945), ⑦ Washing Clothes(미상), ⑧ Refugees Jam Roads(전쟁기), ⑨ Two Children(전쟁기), ⑩ mirror shop(1958), ⑪ Book Vendor(1958), ⑫ Myung-Dong(1958)

이에 해당되는 자료는 위 <표 4> 1번 '에이다 E. 리케 컬렉션', 2번 '아그네스 L. 아담스 컬렉션', 15번 '남영 청 컬렉션, 20번 '한국 전쟁 사진집', 22번 '마샬 필 컬렉션', 32번 '스टे

파니 한 컬렉션' 등으로서 총 491장의 사진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특징적인 사진류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8>의 (1) '아그네스 로 춘 컬렉션'(흑백사진 11장)은 주로 일제강점기 사진들을 소장한 경우이다. 한인 교육기관, 이승만 관련 사진, 동지회 회원 등의 사진 등을 볼 수 있다. 특히 <그림 7>의 ①은 1932년경에 촬영한 '한국기독교교회 국어학교' 사진으로서, 교사 'Gertrude Ko Min'과 한국 학생들의 사진이라고 밝혀져 있다. 근대기 미주 지역 한인사회에서는 각처에 '국어학교'를 설립하고 한국어를 교육했는데, 특히 교회 부속의 국어학교가 다수를 차지했다.(윤금선, 2017, 163) 이것은 그 중에 속하는 국어학교 사진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2) '남영 청 컬렉션'(컬러사진 116장)과 (3) '에이다 E. 리케 컬렉션'(흑백사진 118장)⁹⁾은 모두 1940년대 중후반기 사진으로 해방기에 해당된다. 주로 농촌과 도시 풍경, 결혼식 등의 풍속 사진, 관공서, 역사적 고적물, 정치적 사건, 도시 풍경과 서민들의 생활상 등 다양한 측면에서 당대 한국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들이다.

(4) '한국 전쟁 사진집'(흑백사진 141장)과 (5) 마샬 필의 사진류(흑백사진 33장)는 시기적으로 전쟁기와 휴전 이후에 촬영한 것들로서, 특히 (4)의 경우는 주로 한국에 주둔해 있던 미군들이 찍은 사진들이다.¹⁰⁾ 각각의 사진에 연도 표시는 없으나, 컬렉션 서두에 1951~1953년도에 촬영한 사진이라 밝히고 있다. 전쟁기라는 점에서 피난민 행렬과 피난민촌, 보육원, 포로 사진 등이 주를 이루며 부분적으로 임시 학교에서 초중고 학생들이 수업하는 장면을 담고 있기도 하다. (5)는 모두 1958년도 전쟁 직후에 촬영한 것이다. 미군 기지와 인접한 서울 후암동을 배경으로 한 사진들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예시로 든 사진(<그림 7>의 ⑩~⑫)에서도 보이듯이 거리의 행상인들, 일반 서민들의 생활상 등을 보여준다. 이 외에도 '스테 파니 한 컬렉션'(<표 4>의 32번, 컬러사진 72장)은 전쟁 전단지과 한국엽서 등 소장 가치가 큰 희귀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어 주목되는 사진들이다. 이렇듯 한국학센터의 사진류는 시기별로 역사적인 사건, 풍속사, 생활사 등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자료들이다. 그러므로 보존 및 검토가 필요한 소중한 이미지들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한국학센터는 이주 한인 사진과 더불어 근대기 음반, 실제 이주 세대 후손들의 육성과 모습을 담은 비디오 카세트(인터뷰 자료) 등 멀티미디어 자료들도 소장하고 있다. 특히 인터뷰 자료는 '로버타 WS 장 컬렉션'(<표 4>의 30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학센터에서 정리한 목록을 제시하면 <표 9>와 같다.

9) 특히 이 사진들은 '에이다 E. 리케'가 한국에서 미육군 장교로 재직하는 동안(1946~1947년)에 촬영한 것이라는 특징을 지닌다.('에이다 E. 리케 컬렉션(Ada E. Leeke Collection)', Center for Korean Studies Digital Archive)
 10) 일례로 <그림 7>의 ⑧은 W. F. Walker라는 미군에 의해 촬영된 것으로 남으로 피난하는 가족들의 모습이며, ⑨는 Ronald W. Spires라는 미군이 촬영한 사진으로, 부산에 위치한 '해피마운틴 고아원'에 도착한 남매를 촬영한 사진이다.('한국 전쟁 사진집(Korean War Photograph Collection)', Center for Korean Studies Digital Archive)

〈표 9〉 Roberta WS Chang Collection(L: LIST, V.C.N: VIDEOCASSETTE NUMBER)

L	INTERVIEWEE	V.C.N	L	INTERVIEWEE	V.C.N
1	Chang, Judge Robert Won Bae	5	28	Kim, Walter Tae Bong	19
2	Chang, Dr. Rosie	17	29	Kim, Dr. Yin Kim	11
3	Choi, Clarence	5	30	Ko, Bob	15
4	Choi, Emily Lee	5	31	Kobayashi, Katherine Kwon	14
5	Choy, Mary Whang	12	32	Kwon, Agnes Pahk	14
6	Chun, Agnes Rho	18	33	Lee, Angeline	14
7	Chung, Charles	13	34	Lee, Charles	10
8	Chung, George M.Y.	12	35	Lee, Jonah	4
9	Chung, Hazel Pahk	1	36	Mack, Ruth Lee	4
10	Chung, Julia Chang	19	37	Min, Dr. Thomas	25
11	Chung, Dr. Nam Young	9	38	Minn, Herbert	20
12	Dunn, Phyllis	21	39	Ome, Esther Lim	23
13	Dunn, Minnie You	6	40	Owen, Phillip George	1
14	Halm, Howard	9	41	Owen, Philson	1
15	Halm, Mary	9	42	Owen, Philo	1
16	Han, John	12	43	Park, Esther	3
17	Han, Mary Moon	10	44	Yang, Margaret Kim	7
18	Hong, S. Y. Skip	2	45	You, Dr. E. Won Sik	6
19	Hong, Tai Sung	19	46	You, Eleanor Chun	24
20	Hong, Patricia Kim	19	47	You, Richard of Hilo	16
21	Jhung, Bryson	13	48	You, Dr. Richard You	24
22	Kanada, Caroline Lee	15	49	Young, Dr. Jackie	15
23	Kang, Esther	2	50	Yu, Pun Cho	21
24	Kang, Yong Ok	11	51	Discussion on various topics by Charles Chung, Dr. E. Won Sik You, and Skip Hong	22
25	Kim, Edward	8	52	Rev. Samuel Lee	22
26	Kim, Jimmy	17	53	Dr. Robert Wong, neighbor of Dr. Syngman Rhee in Hilo around 1925 to 1929	3
27	Kim, Margaret Yang	17			
Total individual interviews					52

출처: 한국학센터 컬렉션(Center for Korean Studies Collections)

‘로버타 WS 장 컬렉션’은 비디오 테이프, 1903~1905년 하와이 초기 이민자 후손들의 육성을 녹화한 자료들이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 한국학센터 후원으로 로버타 장이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총 개인 인터뷰 52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인터뷰 대상자는 70세 이상의 한인이었으며, 무작위로 선발되었지만 한국 기독교 교회와 감리 교회 소속인 경우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는 초기 이주가 기독교회와 관련이 깊다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 내용은 부모들이 하와이에 온 경위, 하와이에 도착했을 때의 나이, 가족 구성원, 그들이 살았던 곳, 참여한 공동체, 부모가 속한 교회와 조직(Korean University Club; the Tae Kuk Club; the Delta Frat and Sorority; and the Korean American Club), 지도자로서의 기억,

기타 특별한 사건 등 다양한 것이었다.¹¹⁾

이상 한국학센터의 39개 컬렉션 중 ‘동지회 컬렉션(Tongjihoe Collection)’, ‘한국어 교재 컬렉션(Korean Textbook Collection)’, ‘선일 리 컬렉션(Sun-il Lee Collection)’, 기타 사진류 및 오디오류 컬렉션 등 주목되는 자료들의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본고에서는 전반적인 문헌 정보 및 자료의 기초적인 사항만을 제시했지만, 근대기 문헌류의 경우 출판사별 분류로 당대 출판사의 발간 서적의 특징을 살필 수도 있을 것이며, 연도나 편저자가 미상인 경우, 국내서적인지 미주 지역에서 발간된 서적인지를 파악할 필요도 있다. 이 외 이들 자료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서지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Ⅲ. 맺음말을 대신하여 : 한국 컬렉션 체계화의 필요성

지금까지 하와이대학교 마노아캠퍼스(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 ‘해밀턴 도서관(Hamilton Library)’의 ‘스페셜 코리안 컬렉션(Special Korean Collecton)’ 현황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하와이대학 내에는 고문헌 및 이주 초기 한인들의 문헌류와 사진류, 음반, 인터뷰 자료 등 멀티미디어류가 상당수 소장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으로는 소장 자료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서지 정보 등이 불분명하게 제시되는 경우도 발견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에 대해서는 향후 면밀한 검토와 재정비가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본고는 하와이대학의 한국학 자료를 시범적으로 검토한 경우로서, 이를 토대로 향후 해외 한국학 자료 전반에 대한 체계화의 문제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해외 고문헌 및 근대기 한국학 자료의 체계화

우선적으로 해외 소재의 ‘고문헌 및 근대기 한국학 자료의 체계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것은 미주 지역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 등 초기 이주 지역 전반에 해당된다. 현대로 올수록 국가 간의 네트워크도 활성화되었다. 그 결과 자료 검색도 용이하여 그 현황을 쉽게 살필 수 있다. 그러나 초창기 이주 한인 자료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가 부족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이에 당대 해외 동포들의 학문 및 문학,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 걸친 활동상을 보여주는, 연구사적으로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연구자들이 파악하지 못한 자료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례로 강양원·클레어 유 편저(2011)에서는 근대기 미주, 중국, 일본, 중앙아시아 등지의 한인 교육 자료 현황과 그 특징을 분석하고 있는데, 자료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11) “로버타 장 컬렉션(Roberta W.S. Chang Collection)”, Center for Korean Studies.

않았음을 보여준다. 한 예로 ‘대한인국민회’ 북미지방총회가 발간한 『초등국민독습』은 1927년도 미주 지역 국어 교과서로서 1~3권(총 3권) 중 마지막 3권만 현존한다고 밝혔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표 6>) 하와이대학 한국학센터에 전권(全卷)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중국 한인사회에 유입된 『초등소학수신서(初等小學修身書)』가 동지역에서 최초로 발간된 것으로 잘못 기술된 오류도 보이며, 러시아 지역 조선어 교과서인 『붉은 아이』 저자를 미상으로 밝히고 있는데, 계봉우로 널리 알려진 교재이기도 하다.(강양원·클레어 유 편저. 2011, 92-294)이 외에도 탐색한 기관의 서지 사항만으로 교육 자료의 현황을 단정하는 경우를 여럿 발견할 수 있다.¹²⁾

그런데 강양원·클레어 유 편저(2011)는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 연구자들이 출판한 연구서이기도 하다. 이를 보면 현지 연구자와 국내 연구자와의 시각 및 기존 정보에 대한 이해도에서 간극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 국내외 소장된 한국학 자료들이 무엇인지 탐색하고 상호 비교하며, 현존 자료의 소장 정보를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은 문제를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학 자료의 수집과 발굴이 우선시된다. 이를 위해서는 근대기 한국학 자료들을 소장한 기관은 어디이며, 자료들의 실제적인 구축 현황은 어떠한가?(해외 각지 대학 도서관 및 한국학 연구소, 기타 유관 기관 자료 현황)를 면밀히 탐색해야 할 것이다. 국내외 on-off line 자료는 물론 해외 한인 단체의 문건, 교육 자료, 이론서, 논문, 신문, 잡지 등과 기타 각 지역 한국학 자료들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 해외 한인 관련 사이트의 탐색, 이주사 관련 서적에 나타난 기록의 검토 등을 통해서도 근대기 문헌 정보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타 유럽 등지와 링크된 자료 등도 유의미할 것이다. 여기에 근대기라는 시기적인 특성상 현지 조사를 통한 발굴 작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발굴 및 수집 자료들에 대한 문헌 정리가 필요하다. 자료 목록을 엑셀(excel) 작업 등으로 DB화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며, 회귀 자료들에 대해선 이미지화(Acrobat/PDF) 및 해제 작업, 선편(選編) 작업 등을 동반해야 할 것이다. 이는 한국학 자료들을 의미 있는 하나의 정보원으로 조직하고 재구성하는 것으로서, 근대기 해외 한인의 한국학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며, 나아가 관련 연구자를 위한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기도 하다. 정리컨대 ‘해외 고문헌 및 근대기 한국학 기초 자료의 체계화’를 통해 발굴되지 않았거나 산재되어 있는 한국학 자료들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현행 연구의 편이성과 향후 연구의 발판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일련의 한국학 자료 구축 과정들은 각계 학문 분야 연구자들이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2) 이것은 하와이대학 한국 컬렉션 중, 일부 회귀 도서들의 불확실한 정보에서도 드러나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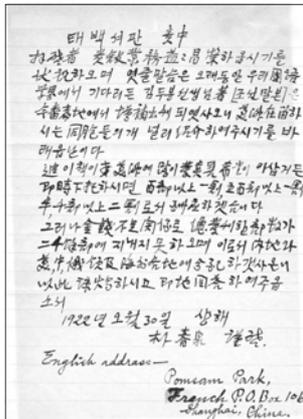
2. 자료의 분석과 통사적 기술

앞선 자료 정리 및 체계화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통사적 분석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각지 자료의 학문 분야 및 그 성격, 둘째, 동서 한국학 자료 비교 및 국내외 교류 상황, 셋째, 각지 자료의 당대적 학문 가치(1. 각 자료의 학문적 위상, 2. 당시 한인들의 학문 체계의 탐색) 등의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원전 자료들이 각 학문 분야에서 어떠한 가치를 지니며, 근대기 한인사회의 지식 체계 등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등의 고찰은 당대 여타 문헌 정보를 참조하는 것이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앞선 <표 6>에 제시된 『초등국민독습』(1-3권)은 근대기 해외 한인 신문인 《신한민보》 서적 광고에서 여러 번 드러난 교재이기도 한데, <특고>(《신한민보》, 1922. 2.9)에 따르면 이 교재는 아동들의 수준에 맞게 과정보로 편찬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여타 기사 자료나 문건류 등에서는 당시 한인 국어학교에서의 활용도, 교수법, 국어 교과서로서의 가치 등이 언급되기도 했다.¹³⁾ 이러한 문헌 정보는 당대 자료적 가치 등을 논하는데도 유용하다. 나아가 현재 소실된 자료들에 대한 파악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자료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근대기 저널 및 문건류 등도 참고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원전 이외의 자료 검토는 당시 한국학 자료들의 교류 현황을 살피는 데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8>은 동북아시아 지역 서신류로서 1922년 5월 30일 박춘천(朴春泉)이 태백서관(太白書館)에 전달한 내용이다. 이를 보면 상해에서 발간된 김두봉의 『김두봉선말본』, 『좋은 글』 등의 책자가 미주 지역에 전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 <국내위원부에서 원동위원부에 보낸 공함>이나 <차리석이 흥연·송종익에게 보낸 서신>을 보면, 미주 지역에서 출간된 『삼천만의 서원(三千萬의誓願)』(송종익 저), 잡지 및 창가책이 중국 및 국내 경성도서관에도 전달되기도 하는 등 동시기 국내외 한인 상호간의 서적 교류가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¹⁴⁾



<그림 8> 박춘천이 태백서관에 보낸 서신(독립기념관 흥사단 서신류)

한편 <상해에 모범소학교, 먼저 조선훈>(《동아일보》, 1924.1.4)을 보면, 국내에서 동포 사회에 서적을 보낸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이 기사는 상해 민족학교인 인성학교(仁成

13) <우리 초등국민독습 필역>(《신한민보》, 1921.7.21), <우리 초등국민독습 출판 문제>(《신한민보》, 1921.7.28.) 외 다수.
 14) 이 자료들은 모두 '한국독립운동사시스템(<http://search.i815.or.kr>)' 자료로서, 박춘천 서신은 "미주 흥사단 서신류, 자료번호: 1-H01454-000", 안창호 공함은 "독립기념관 독립운동가자료 안창호 공함, 1947", 차리석 서신은 "독립운동가자료 안창호 서신류, 1924.6.11" 등에 밝혀져 있다.

學校) 부속도서관 찬조에 관한 보도이다. 이를 보면 동아일보사가 국내 각지에 도서 기부를 호소하고, 수합된 서적들을 전달했음을 알 수 있다. 보다시피 원전 외에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이주 한인들이 각지에서 서적을 발간했을 뿐만 아니라, 본국 서적의 공유, 상호 서적의 교류 등도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처럼 기타 사료들의 검토는 자료의 당대적 가치, 한인 상호 간의 교류 현상, 나아가 당대 한인들의 학문 활동 및 지식 체계의 형성을 논하는 데도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하와이대학교 한국학 자료 분석을 모본으로, 한국 컬렉션의 이해와 향후 연구 방향성을 논하였다. 이는 미주, 동북아시아,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등지의 자료들을 포괄하는 논의이기도 하다. 그러나 연구의 규모나 대상, 그리고 그 성격 면에서 볼 때 집단 연구를 통해 서만 가능한 학제 간 과제이기도 하다.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지닌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업 체제를 갖추고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초창기 한국학 자료를 총괄적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해외에서 이루어졌던 우리 민족의 학문 활동상을 사적(史的)으로 고찰하고 새롭게 조명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나아가 미래 한국학 연구의 새로운 기술을 유도하는 토대로 작용할 것이라 여긴다.

참고문헌

- 강양원, 클레어 유 편저. 2011. 『韓國 이민초기의 교육의 발자취』. 서울: 선인
- 국립중앙도서관. 2014. 『미국 하와이주립대학교 해밀턴도서관 소장 한국고문헌』.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김원용. 2004. 『재미한인 50년사』. 서울: 해안.
- 김창범. 2004. 『미주 한인이민 100년사』. 서울: 코람데오.
- 로버타 장, 웨인 패터슨, 이주영 옮김. 2008. 『하와이의 한인들』. 서울: 눈빛.
- 웨인 패터슨, 정대화 옮김. 2003. 『하와이 한인 이민 1세: 그들의 삶과 애환의 승리(1903-1973)』. 서울: 들녘.
- 윤금선. 2004. 19세기 초 재미 한인의 국어교육. 『국어교육』, 113: 297-354.
- 윤금선. 2015. 朴容萬의 國語教科書 研究. 『語文研究』, 43(3): 158-167.
- 윤금선. 2017. 『우리말 우리글 디아스포라의 언어』. 서울: 월인.
- 윤인진. 2004. 『코리안 디아스포라』.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 차배근 외. 2002. 『우리 신문 100년』. 서울: 현암사.
- Roberta, Chang and Lee, Seonju. 2012. *When the Korean World in Hawaii was Young 1903-1940*. Seoul: Bookorea.

[웹자료]

하와이대학교도서관. <http://manoa.hawaii.edu/library>
한국독립운동사시스템, <http://search.i815.or.kr>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www.aks.ac.kr/home/index.do>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a, Bae Geun et al. 2002. *100 years of our newspaper*. Seoul: Hyeonamsa.
- Kang, Yang Won and Clare, You. 2011. *The footprints of early education of immigrants*. Seoul: Sunin.
- Kim, Chang Bum. 2004. *100 Year History of Korean Immigration to America*. Seoul: Coram Deo.
- Kim, Won Yon. *50 year History of the Korean People in American*. Seoul: Hyeon.
- National Library of Korea(KRILI). 2014. *Korean Rare Books in Hawai' University at Māoa*.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 Roberta, Chang and Wayne, Patterson. Lee, Joo Young Translation. 2008. *The Koreans in Hawai'i A Pictorial History 1903-2003*. Seoul: Noonbit.
- Wayne, Patterson. Jung, Dae Hwa Translation. 2000. *The Ilse: First-Generation Korean Immigrants in Hawai'i, 1903-1973*. Seoul: Dulnyouk.
- Yeun, In Jin. 2004. *Korean Diaspora*. Seoul: Korea University Press.
- Yeun, Keum Sun. 2004. "Korean's language education that live in United States of America in early 19th century." *Korean Language Education*. 113: 297-354.
- Yeun, Keum Sun. 2015. "A Study on Korean textbooks written by Pak Yong-man." *Eomun Eongu*, 43(3): 158-167.
- Yeun, Keum Sun. 2017. *Korean Language and Letters: Language of Diaspora*. Seoul: Worin.

